제1부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1부 · 감정이란 무엇인가 (1부 머리말 포함)

『신앙감정론』 제1부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머리말 + 1. 감정이란 무엇인가 (인쇄 141~152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베드로전서 1:8을 본문으로 삼아 출발합니다. 핍박을 받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불에 단련되는 금처럼 시련을 거치며 참됨이 드러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순수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두 가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교리를 세웁니다. 이어서 '감정'을 정의합니다. 감정은 지성과 나란히 있는 영혼의 또 다른 기능, 곧 성향과 의지가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의 자리는 몸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못 박은 뒤, 감정과 격정을 구분하고 감정의 종류를 나누는 데서 장을 마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1. 본문과 배경: 불 속의 금처럼 시련받는 믿음

에드워즈는 베드로전서 1:8을 바로 앞 6~7절과 함께 읽습니다. 수신자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핍박을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고

시련은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냅니다. 금처럼 보이는 물질도 불에 넣어 보면 진짜 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련은 참된 신앙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드러냅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것은 가장 강하게 눌릴 때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련은 신앙을 정화하고 강하게 합니다. 성장을 막는 거짓된 혼합물을 걷어 내어, 마치 불로 불순물을 태운 금처럼 참된 것만 남게 합니다. 이렇게 입증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1. 시련은 신앙의 진위를 가르는 '시험'이다
2. 첫째 유익: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남
3. 둘째 유익: 참 신앙의 아름다움이 빛남
4. 셋째 유익: 혼합물이 빠져 순수하고 단단해짐
5. 결말: 재림 때 칭찬·존귀·영광

> **베드로전서 1:6**
> 수신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 곧 핍박임을 보여 준다
>
>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 **베드로전서 1:7**
> 불로 연단되는 금의 비유.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칭찬·존귀·영광을 얻는다
>
>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 **베드로전서 1:8**
> 장 전체의 본문. 시련 속 참 신앙의 모습(사랑과 기쁨)을 보여 준다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고난 속 그리스도인들이 보여 준 참 신앙의 행동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고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고난의 자리로 이끌고 끝까지 견디게 한 힘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 세상 눈엔 그리스도인이 미친 사람 같았다
2. 그들을 움직인 건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3.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사랑함
4.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봄

> **베드로전서 1:8**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 참 신앙의 첫 행동이 사랑임을 보여 준다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3. 둘째 행동: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기쁨입니다. 외적인 고난이 심했지만 내적인 영적 기쁨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기쁨이 그들에게 힘을 주어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기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두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기쁨이 생기는 경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통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쁨의 성격입니다.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나 육체의 쾌락과 질적으로 다르고, 더 순결하고 하늘에 속한 신적인 기쁨이었으며, 그 정도도 넘쳐흘렀습니다. 또 이 기쁨은 '영광이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육체적 쾌락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과 달리 이 기쁨은 마음을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 기쁨의 전주곡이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2. 기쁨의 통로: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믿음
3. 성격과 정도 모두 '말할 수 없는' 기쁨
4. 육체적 쾌락과 달리 마음을 고귀하게 함
5. 하늘 기쁨의 전주곡, 남에게도 비침

> **베드로전서 1:8**
>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참 신앙의 둘째 행동이 기쁨임을 보여 준다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히브리서 11:1**
> 장절 표시는 없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을 반영한다. 기쁨이 믿음을 통해 온다는 점을 받친다
>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4. 교리: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지금까지의 본문 풀이를 바탕으로 에드워즈는 장 전체, 나아가 책 전체의 명제를 세웁니다. 베드로는 시련 속에서 수신자들의 신앙이 참되고 순수하고 영광스러워졌다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참됨이 드러난 곳이 바로 사랑과 기쁨이라는 '신앙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 거룩한 감정 안에 크게 자리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대체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이 감정'뿐'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큰 부분이 감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두 단계로 논증하겠다고 예고합니다. 먼저 감정이 무엇인지 밝히고, 다음으로 참 신앙이 대체로 감정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그 첫 단계까지 다룹니다.

1. 시련 속 참 신앙은 사랑과 기쁨으로 드러났다

4. 논증 순서: ① 감정의 정의 ② 신앙과 감정

> **베드로전서 1:7**
> 시련을 통해 신앙이 참되고 순수하고 영광스러워진다는 전제
>
>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 **베드로전서 1:8**
> 그 참된 신앙의 내용이 사랑과 기쁨, 곧 감정이라는 근거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 5. 영혼의 두 기능: 지성과 성향(의지)

에드워즈는 먼저 감정을 정의합니다. 감정은 영혼의 의지와 성향이 더 활기차고 느낄 수 있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설명하려고 그는 하나님이 영혼에 주신 두 기능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 곧 지성입니다. 둘째는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대상에 끌리거나 거부하는 기능입니다. 영혼은 무엇이든 완전히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기뻐하거나 꺼리고, 인정하거나 거절합니다. 이 둘째 기능을 성향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동을 결정하므로 의지라 부르기도 하며, 마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능은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상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끌리는 쪽이 있고, 반대하고 싫어하며 거절하는 쪽이 있습니다.

1. 영혼의 기능은 둘: 지성과 성향(의지)
2. 지성은 알고 분별하고 판단한다

5. 방향은 둘: 좋아함 쪽, 싫어함 쪽

> —
>
> 이 단락에서 에드워즈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영혼의 구조를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대목이다

📜 6. 정도의 차이: 감정과 의지는 하나의 기능이다

성향과 의지는 표현되는 정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무관심을 겨우 넘는 약한 좋아함이 있고, 더 강한 좋아함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커지면 영혼이 활력 있게 움직이고, 영혼과 몸을 연결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몸의 피와 기운까지 움직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사람들이 정신을 '마음(heart, 심장)'이라 불렀다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성향의 활동을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의지와 감정이 서로 다른 두 기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은 본질이 같고, 얼마나 생기 있게, 얼마나 느껴지게 움직이느냐만 다릅니다. 의지는 완전한 무관심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움직이는 만큼만 움직입니다. 다만 일상의 모든 의지 활동을 '감정'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아함이 크면 사랑, 싫어함이 크면 미움이 됩니다. 아직 없는 대상을 향한 끌림이 크면 갈망, 지금 있는 대상을 승인하는 좋아함이 크면 기쁨, 지금 있는 대상에 대한 불쾌감이 크면 슬픔이 됩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언어의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1. 좋아함·싫어함은 약하게도 강하게도 일어난다
2.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강하면 '감정'
3. 의지와 감정은 본질이 같은 한 기능이다
4. 의지는 감정이 움직인 만큼만 움직인다
5. 좋아함↑=사랑, 끌림↑=갈망, 승인↑=기쁨

> —
>
> 성경 인용 없음. 의지와 감정의 관계를 정의로 논증한다

“의지와 감정은 두 개로 분리된 기능이 아니다.”

📜 7. 감정의 자리는 몸이 아니라 정신이다

영혼과 몸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생생한 활동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주어 체액과 '동물 정기(animal spirits)'를 움직입니다. 반대로 몸의 움직임이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드워즈는 감정이 거하는 곳은 오직 정신이라고 단언합니다. 나무나 몸이 생각하거나 알 수 없듯이, 몸은 사랑이나 미움, 기쁨이나 슬픔, 두려움이나 희망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품는 것이 영혼뿐이듯, 그 생각한 대상을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영혼뿐입니다. 몸의 반응은 지금은 감정에 늘 따라오지만 감정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 효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몸과 분리된 영혼도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영혼·몸 연합 때문에 감정은 몸을 움직인다
2. 몸이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
3. 그래도 감정의 주체는 오직 영혼(정신)
4. 몸의 떨림·눈물은 부수 효과일 뿐
5. 몸 없는 영혼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

> —
>
> 성경 인용 없음. 영혼과 몸의 관계를 논리로 구분한다

“우리 감정의 거처는 육체가 아니라 오직 정신이다.”

📜 8. 감정(affections)과 격정(passions)의 차이

움직이는 모든 경우를 가리킵니다. 반면 격정은 몸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갑작스럽고 격렬하며, 정신이 충동에 휩쓸려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구분은 뒤의 논의에서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신앙감정은 마음을 흔드는 순간적 충동이 아니라, 의지 전체가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감정과 격정은 흔히 섞어 쓰지만 다르다
2. 감정: 의지가 생생하게 움직이는 넓은 말
3. 격정: 갑작스럽고 격렬하며 통제 안 됨
4. 신앙감정 ≠ 순간의 충동

> —
>
> 성경 인용 없음. 용어를 정리하는 대목이다

📜 9. 감정의 두 종류와 섞인 감정

의지의 활동이 '환영하고 좋아함' 또는 '거절하고 반대함'으로 나뉘듯, 감정도 두 종류입니다. 영혼이 대상에게 끌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감정으로는 사랑, 갈망, 희망, 기쁨, 감사, 만족이 있습니다. 영혼이 대상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감정으로는 미움, 두려움, 분노, 슬픔이 있습니다. 두 방향이 합쳐진 감정도 있습니다. 동정은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가 고통받는 사실을 슬퍼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크게 좋아하는 마음과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강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다른 예도 더 들 수 있지만 두 번째 명제로 서둘러 넘어가겠다며 이 장을 마칩니다.

1. 끌리는 감정: 사랑·갈망·희망·기쁨·감사·만족
2. 밀어내는 감정: 미움·두려움·분노·슬픔
3. 섞인 감정: 동정 = 사랑 + 슬픔
4. 섞인 감정: 열정 = 큰 호감 + 강한 반감
5. 다음 단계: 신앙이 감정 안에 있음을 논증

성경 인용 없음. 감정을 분류하는 대목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영혼의 성향과 의지가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것. 그날그날의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향해 크게 끌리거나 밀어내는 상태입니다.

지성(understanding)
사물을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영혼의 기능입니다.

성향(inclination)
아는 대상에게 끌리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영혼의 기능입니다.

의지(will)
성향을 행동을 결정하는 쪽에서 부른 이름. 에드워즈에게 의지와 성향과 마음은 같은 기능입니다.

마음(heart)
같은 기능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 강한 감정이 가슴(심장)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격정·정념(passion)
몸에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작용해 정신이 통제되지 않는 충동적 감정입니다.

동물 정기(animal spirits)
18세기 생리학에서 몸속을 흐르며 감각과 움직임을 전한다고 여긴 미세한 기운. 번역본은 '본능'으로 옮겼습니다.

신앙고백자

성경 본문에서 끌어낸 신학 명제. 청교도 설교는 '본문 → 교리 → 적용'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영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하는 내적 시각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시련은 불처럼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고, 빛내고, 정화한다.
- 시련 속 참 신앙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그래서 에드워즈는 말한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 감정은 의지와 성향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의지와 하나이고, 자리는 몸이 아니라 정신이다.
- 감정은 충동적인 격정보다 넓은 말이며, 끌리는 감정과 밀어내는 감정, 그리고 둘이 섞인 감정이 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편 · 감정은 기분이 아니다 · 영혼의 두 기능과 감정의 자리 (준비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